

흑산공항 14년만에 본궤도... 올 하반기 착공

환경부 국립공원위 심의 통과
공원구역 변경계획 최종 확정
서울~흑산 1시간대 2026년 완공

전남도의 숙원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남도는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 흑산공항 부지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변경계획'을 심의하고 국립공원 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공원구역 변경은 공항건설을 위해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부지보다 8배 넓은 대체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도 공약이자,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도 포함된 흑산공항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상 공사 기간은 3년으로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행정절차 심의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어업권 보상, 묘지 이장 등의 절차도 남아있고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사업비도 계획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부산시가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이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급물살을 탄 사례를 참고하면, 지역의 정치권도 힘을 모아 착공까지 총력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의 반대를 설득하는 것도 관건이다. 현재 지역 환경단체들은 철새의 도래지이자 생물다양성이 높은 흑산도를 자연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문을 내고 "흑산공항 건설은 전남도민의 20년 염원이 깃든 숙원사업이다"며 "흑산공항이 개항되면 서울~흑산이 1시간대로 줄어 교통약자인 도서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개선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흑산공항 사업은 다도해해상국립

공원인 흑산도 68만㎡ 부지에 길이 1.2km, 폭 30m의 활주로를 포함한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신안군의 '흑산도 경비행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이 논의된 이후 올해로 14년 만이다.

흑산공항 사업은 여객선이 유일한 기본 교통 수단인 도서지역의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시급했다. 또 해양영토 수호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대내외적인 이유로 흑산공항 건설은 전남도와 지역민의 숙원이었다.

3년 뒤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배편 등으로 7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간 1535억원의 생산유발효과, 645억원의 부가가치, 1189명의 고용창출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했다.

▶ 관련기사 3면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inilbo.com

알립니다

멀티미디어 전남일보 '주역'을 찾습니다



제35기 수습기자 및 경력기자 공채
모집부문 수습 및 경력기자 0명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수습기자: 필기시험(논술)
3차 면접
지원자격 학력·전공·나이 및 성별에 제한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3년 2월 17일(금) 15시까지

*접수처 E-mail : recruit@jinilbo.com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필기시험 : 2023년 2월 21일(화) 10:00 *예정

전남일보 승정문화관(지하 1층)

■ 면접 : 대상자 개별 통보 ■ 합격자 발표 : 지면 및 홈페이지에 공고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본사 소정 양식, 전남일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경력기자는 기명기사 3건 이상

※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일보 경영본부(062-510-0421)로 연락바랍니다.

광양에 9천억 규모 제2 LNG 터미널 착공

20만kl용 저장탱크 2기 신설

전남도는 31일 광양국가산단에서 9000억원 규모의 광양 제2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주) 부회장, 김민철 포스코건설 부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포스코그룹 임직원 및 고객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양 제2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은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주)의 합작법인인 엔이에이치(주)가 건설한다. 오는 2025년까지 9300억원을 투자해 ㈜포스코가 제공한 광양국가산단(동호안) 부지에 20만kl용 저장탱크 2기를 갖출 예정이다.

20만kl 용량의 액화천연가스는 전남 전체 77만 가구가 약 3.5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2025년까지 터미널 구축 기간 하루 평균 600여 명의 건설인력이 투입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액화천연가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지속 발전하기 위한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도 포스코그룹이 철강산업을 넘어 액화천연가스, 수소,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하도록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과 기업 관계자 등이 31일 광양 국가산단에서 열린 광양 제2 LNG 터미널 증설공사 착공식에서 착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홍탁의 Branding Class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 【모집 인원】 30명 내외
-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 【강의 기간】 2023년 3월20일 개강-5월29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 【전형 방법】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강료 : 220만원(부가세 포함)
입금계좌 : 농협 / 605-01-226718 / (주)전남일보
- 【접수 마감】 2023년 3월 중순
-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 【모집 대상】 브랜딩에 관한 전반적 지식 습득과 브랜딩의 실천 경험 원하시는 분
나만의 브랜드 컨셉으로 시장에서 'Power Brand'가 되길 희망하시는 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대중의 관점에서 브랜드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
기업/지방자치단체·홍보관련 부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
- 【강사 이력】 김홍탁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__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전(前)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빌게이츠재단 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위원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